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원에서 있었던 일

줄리 A. 만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필요하리라 는 걸 알았다. 그래서 소년은 초콜릿과 음료수 여섯 병을 배낭에 챙겨 들고 여행길에 나섰다.

네거리를 세 개쯤 지났을 때 소년은 길에서 한 늙은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우두커니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소년은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말고 소년은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초콜릿을 꺼내 그 할머니에게 주었다.

할머니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 번 보고 싶어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할머니는 또다시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것 밖에는 다른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피곤함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소년은 뒤 돌아서서 그 노부인에게로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후 소년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소년에게 물었다. "오늘 무엇을 했길래 넌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소년이 대답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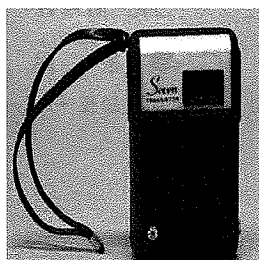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 전에 소년이 덧붙였다.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지껏 본 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어요"

그러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아들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던단다." 아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그녀는 덧붙였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그땐 그랬지▶ 금성사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
 지금의 MP3나 Mobile Phone만큼이나 그때 젊은이들도 이런 작은 라디오를 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들은 라디오만한 배터리를 고무줄로 감아 뒤에 달고는 '광복20년' 같은 연속극이나 한국남 박사들이 나온 '재치문답' 을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차부인 재치부인" 도 흘러나왔죠. 짹 짹 소리가 날때면 손으로 한대 치면 신기하게도 다시 나오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제 다시 라디오들 손에 들면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9월 26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국에서 탈북자를 위해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



이 지구 한 모퉁이에서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예수만 믿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소리없이 떠나겠습니다

→ 그래서 내가 숨어있는 이 구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있을 뿐입니다

행여 지나가는 나그네있어
 "무엇하느냐" 고 물으면
 "예수 믿는 중이라고 " 나는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고 물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는것이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어떻게 사랑하느냐" 고 물으면
 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답살 듣는 딸, 한번쯤 하기▶
 남편: "여보! 천국에서 인원점검을 해야겠어"
 아내: "왜요?"
 남편: "천사가 하나 사라졌을테니까 "

(* 표에 있어서 기 어려운 문은 양으로 처리합니다)

주 일 예배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성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인도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서의 선언 Proclaim

다 같이

36장

찬송 Hymn

9 (시 23)

*찬시편독

다 같이

사도신경

Response Reading

주일학교

197장

아린이 시간 Sunday School

김종건 장로

기도 Prayer

역대상 4:9-10

성경읽기 Scripture Reading

나무심자가 성가대

성가대 찬양 Choir

아베스의 기도

설교 Sermon

김성국 목사

찬송 Benediction

다 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응답송 Response Song

인도자

460장

찬송 Hymn

다 같이

원금기도 Opening Prayer

31	이삭줍기주일
24	Labour Day(25)
17	식사친교주일 은 신자가성가대
10	민음의어머니기도회(12)
3	구역예배(8)
	주일 예배와 모임

8.9월의 예배위원 ◆9월의 교회력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를 찾습니다)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을 하라. 그래도 아버지를 복음화
 *3주간 예배, 전교참석 이후에
 *특별 자력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를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7시

1. 피우소서
 <반문후 귀국> 지관영 권사, 누워지내시면 어머니! 파넬역에 가신다기에 기운 찾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문(미국)> 백제성, 장우진 집사,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마음과 따뜻한 손으로 인해 외손주의 출생이 더 복될 것입니다.

2. 오복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
 *승편대산 비범함으로 축석의 기쁨을 미리 나누시고 한가위 반원 등그런 람무리
 모 축석의 풍요로움을 누리십시오
 3. "성령과 전승 부흥회" <일시> 27일(월)-28일(화) 저녁 7:30 교회
 *마음 다 내려놓고 전승가를 모금해 불러 본지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헌차게 기도해 본지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마, 아빠와 함께
 박수치며 전승 부르는 기쁨을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 주는 부흥회가 된다
 면 더욱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 "수요초청양예배" <일시> 29일(수) 저녁 7:30
 * "살을여성중찬단" 의 은파관이 철야한, "익투스 단성중찬단" 의 우람하되
 단정찬 목소리로 들려지는 찬양으로 거룩한 성전이 채워질 것입니다
 5. "토요일 화성실 철소 자원봉사" 를 기다립니다(10월-12월)
 6. 다음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되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는 Summer Time이라 부르게에 찬 바람이 겨울을 불집어도 여름은 시작되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미리 1시간 더 앞으로(9시->10시)맞추어 놓으십시오.

▶좌한 사인들◀오-매 단풍 들것네 김영림
 "오-매 단풍 들것네"
 평절이면 칠없는 마음이고 싶어진다
 다. 그날이면 부모님 앞에 너자로 누
 왔다가 들었다 주시는 부침개를 받아
 먹고 싶습니다. 부모 앞에서 불손하고
 무뎠하다 말하겠지만 그제야 부모님도
 아이 키우던 재미를 맛볼수 있을 때니
 까요. 아님 그보다 아젠 송편같이 좌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장원에 큰북은 강원 날아오아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래 기를리니
 바람이 찾아서 걱정이리
 바람이 찾아서 걱정이리
 고 계절이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이번 추석을 즐겁히 보내지 않기를 바
 라는 마음입니다